

# “문병란시인 친필 담긴 시집 의미 남다르죠”

### 공옥동 시인 ‘되돌릴 수...’ 발간 작품에 문 시인 침삭 글도 수록 5·18 단상과 제자 사랑 오롯이



공옥동 시인

지난 2015년 타계한 문병란 시인은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시인”으로 불린다. 평생 ‘광주의 어머니’ 무등산을 바라보며 문학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며, 현실의 부조리를 형상화하는 참여시를 썼다. 또한 민족문학작

#### 민망한 날

이에 대해 문 시인은 “영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 산자들의 부끄러움과 해결 없는 현실에 대한 시대적 고뇌”가 담겨 있다고 평하며 다음과 같은 답을 보낸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항쟁기념곡 그것을 못 부르게 하는 (제창금지) 그것은 광주 시민을 졸로 보는 유신찌꺼기 박정희 유신 추종자들의 농간인데 국가기념일 제정 무효화 5·18항쟁 부정하고 싶은 심사가 비틀어진 <김기춘+박근혜> 합작의 저질 현상인데... 국회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대단한 유신당령들의 유신을 위한 명령들의 책동”

이에 앞서 공 시인이 2011년 5월 23일 5·18주간에 썼던 ‘5월의 편지’라는 시에도 문 시인은 5월 항쟁 의미를 부연한다

“...어긋곳에서 젊은이들의 5·18재연에 감사하며/ 아픔만 간직하며 살 수 없기에/ 우리는 또 다른 삶으로의 길을 향한다// 광주/ 무등산/ 망월// 어찌 그리도 곱 맞는 단어들인지/ 이제는 더 이상의 5·18은 없어야 한다”(공 시인의 작품)

“생명의 달이라 일컫는 5월, 그러나 이 땅에선 가

장 잔인한 군부 반란의 살육작전(작전명 화려한 휴가)이 있었으니 5월의 아름다움보다 잔인한 정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못하도록 온갖 폄하와 모함, 거짓 역사를 날조한 저들(이명박 정부의 반동적 방해공작)의 제2의 만행(심지어 북한의 특수부대가 와서 그랬다는 어이없는 거짓말), 다시 한번 가증스러운 살인마(殺人魔)들의 잔학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문 시인의 글)

이처럼 문 시인은 광주 5월에 대해 자신의 단상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한다. “세계가 인정한 순결하고 정의로운 5·18 민주화항쟁 우리 빛고을이 다시 한번 승리하였습니다”라고.

특히 문 시인은 2011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 특설무대에서 열린 5월 마지막 행사와 관련 광주 항쟁 왜곡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기술한다.

“5·18 항쟁시 특수부대가 전두환 노태우의 한국군 소속이 아니라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 600명이 한 짓이라 주장하는 친미친중 극우파 美親놈들, 친안함 사건의 주모자 운운 거짓말 우기는 짓거리, 사 이버 특수작전 세계 최강국 운운하는 보도까지 그들의 억지 거짓말을 위하여 북을 무소불위의 최강국이라 찬양하는데 반공법 국가보안법은 왜 이런 허위 사실유포자, 북한 찬양죄를 눈감아 주나”

이처럼 시집에는 고인이 제자에게 건넨 광주 5월에 대한 견해 등이 다수 수록돼 있다. 또박또박 곧은 글씨로 써내려간 친필은 고인의 성격과 민주화 의지를 보여준다. 이밖에 지난 2016년 발간된 최승희 시인의 작품집 ‘물수제비 뜨는 은빛물무늬’에도 문 시인의 침삭 글, 문학에 대한 견해도 담겨 있어 제자 사랑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김현승 시인에게 문 시인과 함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에 등단한 인연이 있는 손광은 시인은 이번 시집에 대해 “선생님 그리운 밤은 이 세상에 안 계신 선생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감회와 감동의 살아있는 마음을 독자에게 선생님과의 삶을 다감하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시”라고 평한다.

한편 공 시인은 서울문병란문학연구소 창립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문학예술가회 신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요즘 광주비엔날레는 어떤가요?”

지난주 취재자 만난 서울의 미술계 인사는 첫 인사로 광주비엔날레의 ‘안부’를 물었다. 폐막일을 며칠 앞둔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비엔날레 기간중 뉴스를 통해 알려진 제단의 내용이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특 단진 한마디. “창설된 지 26년이 지났으니 이제 자리 잡을때도 되지 않았나요.” 순간, 광주비엔날레를 바라보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난감했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을 주제로 개막한 광주비엔날레가 3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코로나19로 2차례 연기 끝에 개막한 광주비엔날레는 전시기간이 짧고

2017년 광주시는 전시기획자인 김선정씨를 대표 이사로 임명한 뒤 당시 공식상태였던 예술총감독을 총괄큐레이터제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김 대표를 선임했다. 말하자면 경영과 기획 등 제단의 막중한 임무를 김대표 1인에게 맡긴 것이다.

물론 전시기획자 출신이라고 해서 제단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전 시기획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예산 배정과 그에 걸맞은 후원금 유치 등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모든 제단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면 견제와 비판,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애초 광주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실제로 노조는 총괄큐레이터

## 광주비엔날레 잔혹사

입장객을 제한하는 약조조건에서도 8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

하지만 올해 비엔날레는 대회의 성패를 가늠하는 전시 보다는 내부문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의 인사권 남용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터진 것이다. 비엔날레 노조는 지난달 26일 대표 이사의 재단 사유화와 재단 조직 시스템 붕괴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진정서를 광주시와 국가인 권위원회 등 3곳에 접수했다.

저간의 사정야 어찌든, 이번 비엔날레 조직의 분란은 20여 년간 공들여 쌓아온 광주비엔날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그것도 제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러야 할 전시기간 중에 말이다. 우여곡절 끝에 잔치를 열어 놓고 집안싸움을 벌이는 불행사나운 꼴을 국내외에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예견된 결과라는 점에서 광주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를 맡은 김 대표가 리서치 명목으로 해외 출장이 잦고 ‘5·18 40주년’ 전시로 서울 사무소에 상주하는 기간이 많아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광주비엔날레에게 혁신은 ‘보여주기식 쇼’가 된 듯 하다. 초창기 비엔날레 정체성을 둘러싼 파열음은 차치하더라도 신장아 예술감독 학력위조 스캔들, 흥성담 작가의 ‘세월 오월’ 파동 등 빅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강도높은 혁신을 외쳤지만 융두사마가 됐기 때문이다. 창설 이후 혁신위원회를 꾸린 것만 해도 일주 4-5 차례나 된다.

이처럼 광주비엔날레가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 보다 겉핥기식 수술에 그친 탓이다. 제단내부의 정확한 문제제언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한 백악이 무효인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무늬만 혁신’은 안된다. 그건 20여 년간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자부해온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삶의 희로애락 꿰뚫는 감성과 따뜻한 위로의 언어들

### 김이수 시인 ‘무슨일...’ 펴내



김이수 시인이 손수 짠 사진과 함께 아침마다 SNS에 올리던 시 600여 편 가운데 엄선한 154수를 수록한 시집 ‘무슨 일 있었냐고 묻기에’ (일월일월)를 펴냈다.

이번 시집은 지난 2018년 첫 시집 ‘흰 아침, 산이 전하는 말’을 펴낸 이후 3년만에 발간한 두 번째 작품집이다. 제목부터 일상의 감성과 따뜻한 위로가 묻어나는 작품집은 삶의 희로애락을 꿰뚫는 안목을 담고 있다.

시인은 수년째 거의 매일 새벽 뒷산에 오르거나 앞강을 거닐며 ‘바람이 전하는 말’을 적어 사진과 함께 올리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집

은 200명에 이르는 애독자들이 십시일반 선주문으로 힘을 보태 발간됐다. 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보면 ‘부처가 똥’이듯 밥도 시도 다 마침내는 똥이다. 밥이 밥 같고 시가 시 같아야 똥은 소리 향기로운 것 아니냐. 어찌 먹은 밥에 오늘 아침 누는 네 똥은 얼마나 향기롭드냐”(‘밥과 시 그리고 똥’ 중에서)

위 시는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명징하게 담으면서도 인간의 자기모순과 부조리를 시로 풀어

낸다. 아울러 시인의 체험, 풍자 등이 여러 작품 속에 담겨 있어 삶의 실재성과 함께 사유를 하게 한다.

그러나 작품집 미덕은 모든 대상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보듬는 데 있다. 시인의 말은 애뜻한 노래이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다. “누구라도 흘러가는 거야/ 사랑만 남긴 채 다 가지고/ 사랑을 위해 떠나는 거지”라는 표현에서 시인의 삶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김이수 시인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으며 한 살림협동조합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이후 잡지사 기자를 거쳐 20년간 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지금은 글과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66회 호남예술제 국악 입상자		
◁심사위원> 윤종호 (나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1 이하은(광주예술고2)	1 박규리(진월초6)
◇해금 초등부 5, 6학년 ▲동상 1 박하윤(살레시오초5)	◇기아금 병창 초등부 3, 4학년 ▲금상 3 신소을(광주송원초4)	3 신지민(광주송원초6)
◇채상설장구 중등부 3학년 ▲최고상 1 정다아(금호중앙중3)	1 최시유(광주송원초3)	◇초등부 단체 ▲최고상 3 신지민 외 7명(광주송원초 3-6)
◇기아금 신조 고등부 1, 2학년 ▲은상	2 유아인(광주송원초4)	▲금상 2 이은우 외 16명(신암초3-6)
	◇초등부 5, 6학년 ▲은상 2 신유나(광주송원초6)	▲동상 1 신유나 외 3명(광주송원초 3-6)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b>첨단 돌솥 감자탕 산포점</b></p> <p>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p> <p>☎ 061)332-6108</p>	<p>행정심판전문행정사 <b>행정법인 맥 행정법률사무소</b></p> <p>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p> <p>☎ 062)523-5885, 010-5665-0150</p>	<p><b>평강안마지압원</b></p> <p>북구 임동 191-13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만성피로 및 각종 통증관리 근육통, 3차 신경통, 요통, 관절염, 좌골 신경통 국가공인안마센터</p> <p>☎ 062)527-6664, 010-2645-6664</p>	<p><b>문화결혼상담소</b></p>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p> <p>☎ 062)529-0315, 010-3606-5632</p>		
<p><b>해미패션</b></p> <p>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이상·작품한복전문</p> <p>☎ 062)224-5958, 010-6777-5958</p>	<p><b>(주)K&amp;J컴퍼니</b></p> <p>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테크, 신재생에너지 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p> <p>☎ 1899-1972</p>	<p><b>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b></p> <p>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p> <p>☎ 062)263-2223, 010-3819-6595</p>	<p><b>씨니헤어샵가발</b></p> <p>나주시 성북동 4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p> <p>전화예약 ☎ 010-3996-0489</p>	<p><b>In.ssalon_sia</b></p> <p>동구 경양로 234 그랜드센트럴 119동 807호 휴무 : 매주 월요일 영업시간 AM. 10:00 ~ PM. 8:00</p> <p>☎ 062)233-1202</p>	<p><b>석당화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b>동양철학원</b></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b>필스제화</b></p>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p> <p>☎ 010-4755-9294</p>	<p><b>인철(仁喆)익스프레스</b></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p> <p>☎ 062)572-2323, 010-9509-4422</p>	<p><b>대신청소전문기업</b></p> <p>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p> <p>☎ 062)526-1133, 010-6522-1524</p>	<p><b>보물섬회 활어회 직판장</b></p> <p>동구 산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p> <p>☎ 062)234-8882, 010-3621-0123</p>	<p><b>초대화랑</b></p> <p>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b>고전방</b></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b>남도철학원</b></p> <p>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p> <p>☎ 062)522-9653, 010-8645-2254</p>	<p><b>신신예술의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b>새희망 직업소개소</b></p> <p>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한시모집</p> <p>☎ 062)531-5511, 010-6522-1524</p>	<p><b>드림케어슬루션</b></p> <p>동구 금남로 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 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살(황미살) 즉석 도정기</p> <p>☎ 010-3118-5679</p>	<p><b>박당화랑</b></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